

종합

# 전국 1시간대 생활권 '교통혁명'

### 호남고속철 어제 착공

## KTX 승객 증가 등 균형발전 기여 전남도 "무안공항 반드시 경유해야"

호남고속철도가 24일 착공함에 따라 KTX를 이용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014년 1단계 사업인 충북 오성에서 광주구간이 완공되면 광주에서 서울 등 수도권까지 1시간 대 생활권으로 접어들 수 있게 돼 낙후된 호남권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남선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KTX를 타도 서울에서 광주까지 2시간 30분 이상 걸린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이면 KTX가 시속 300km로 질주할 수 있어 소요시간이 지금보다 1시간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서울과 광주 간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면 KTX를 이용하는 승객이 현재보

다 60~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열차승객 연간 320만 명 중 72%가량인 230만 명이 KTX를 이용하고 있다.

2014년이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승객들뿐 아니라 고속버스 이용자들도 KTX를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항공승객도 비행기 소요시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KTX로 앞다뒀 교통편을 바꿀 것으로 예상돼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 저하에 따른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여론도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으로 이원화된 KTX역이 2014



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송정역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송정역의 KTX 배차 간격이 지금의 1~2시간에서 30분가량으로 짧아져 이용객들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정역세권이 광주의 거점 상업지역으로 발전하고, KTX 광주 차량기지가 하남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철소와 경비 등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주민들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익산역도 전주와 군산, 나아가 새만금 일대의 철도 수요를 충족시킬 서해안권의 '철도 허브'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의료와 쇼핑 분야의 역의 유출이 걱정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광주~목포 구간 노선도를 최종 확정할 때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6천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KTX 활성화와 충청권과 전북 지역 유동 인구 흡수를 위해서는 무안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시설

## MB정부 '전남홀대'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 정부의 도를 넘어선 지역 홀대로 전남 현안사업들이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전남의 미래성장엔 선도할 양대 축인 포틀러원(F1)국제자동차대회와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 최대 현안인 '포틀러원(F1)지원법' 제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25일까지 처리할 23개 민생법안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을 포함시킨 반면 F1지원법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지원법 제정이 늦춰지면서 F1대회 준비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 F1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기존의 조직인 'F1대회준비기획단'을 'F1대회조직위원회'로 확대·개편해야 하나 관련법이 없어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 역시 전북 새만금개발사업에 가로막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정부가 조기착공까지 약속하며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농수산식품부는 J프로젝트 예정지에 대한 유리온실 건설을 강행, 외자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사업'도 영남권에 호남의 2배가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호남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5+3 광역경제권 사업'으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마저 낙동강에 전체 예산의 58%가 투입돼 낙동강 살리기로 전락했다.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지원은 국민 갈등을 초래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국민통합을 기대하기 힘들다.

##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당장 철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무가치와 경품을 금지하는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규제해야 할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무가치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게 신문고시의 골자다. 공정위는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규칙을 폐지하는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신문고시를 실제 근거가 되는 신문법 10조는 23일 통과한 신문법에 살아남았다. 신문법 10조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치 및 무상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었으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존치

필요성을 제기해 존치된 것이다. 따라서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신문법 조항은 겹겹이 법조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정위가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신문고시 폐지를 강력 반대하는 것은 신문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신문법 개정으로 중앙지들이 지역신문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문고시마저 없어지면 지역신문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을 위한 지원·육성에 힘을 쏟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그나마 있는 신문고시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정위는 지역신문을 고사시키는 신문고시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 광주-대구 의료산업 '윈-윈'

### 兩 지자체 시장 등 28일 공동협력 협약 체결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의료산업 분야 윈-윈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광대 광주시장과 김법일 대구시장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 지역의 의료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와 대구지역 주요 대학병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두 도시는 이 협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 기관 간 교류 협력과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으로 선정되면 의료 연구개발

공동 추진,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최근 광산업, 디지털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경북은 IT, 신소재 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 두 지역이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광주시 측의 설명이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최근 양 지역을 잇는 영호남 철도 건설 공동 촉구와, 대전을 포함한 내륙첨단과학 벨트 구축 등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예술제 수상자 시상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54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시상식이 24일 오후 2시 광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어린이나라 어린이집 최보은 원장, 예지 어린이집 박인자 원장, 전경란 미술학원 전경란 원장(아상 왼쪽부터), 그리고 종합최고상을 수상한 세운그림유치원 양인숙 주임교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DJ 병세 호전

폐색전증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태중 전 대통령(DJ)은 인공호흡기 부착 당시보다 건강이 많이 회복돼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최 측근한 비서관은 24일 이 처럼 DJ의 병세가 호전됐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의료진은 김 전 대통령의 혈압, 맥박 등 건강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하는 등 전날보다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손목을 잡거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나로호 8월12일후 발사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최종 연소시험이 오는 30일 실시할 예정으로 통보됨에 따라 나로호의 발사는 내달 12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발사체 1단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1단 연소시험을 오는 30일 수행할 예정이라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30일 예정대로 연소시험이 수행된다면 시험결과 확인 후 한-러 양국 기술자들이 나로호 발사 일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험결과 확인 기간(3일), 확인 후 발사 전 총조립 기간(10일) 등을 감안하며 나로호의 발사는 내달 12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광주시 승용차 훌쩍제 '선택요일제'로

광주시는 승용차 훌쩍제를 27일부터 선택요일제로 전환해 시행한다.

시는 24일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됨에 따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1주 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운행하지 않는 선택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시와 산하기관 관용차와 자가용 승용차로 선택요일제 스티커를 발부받아 운행하게 된다.

선택요일제를 선택하지 않는 차량은 '끝번호 요일제' 적용 스티커를 부착해

운영하고 민간차량은 끝번호가 해당되는 요일에 공공기관 출입에 제한을 받는 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 6번으로 끝나는 차량이 출입 제한을 받고 화요일 2, 7번, 수요일 3, 8번, 목요일 4, 9번, 금요일 5, 0번이 제한을 받는다.

다만 경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차량 등은 훌쩍제와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

광주-김태욱·김광만  
전남-김문일·김기룡

28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김기룡(47) 현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문일(62)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 출신이 출마표를 던졌다. 또 29일로 예정된 광주시장 위원장 선거에는 김태욱(60) 현 위원장과 김광만(48) 전국위원이 각각 24일 후보등록했다.

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김문일 후보는 곡성 출신으로 명지대를 나왔으며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 국민통합21 전남도지부장, 한나라당 원외위원장 공동대표, 현우(주) 대표이사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정치공감각과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 김 후보는 정몽준 최고위원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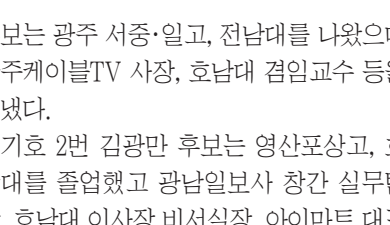
기호2번 김기룡 후보는 순천 출신으로 순천공고,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장 위원장 경선에 나선 기호1번 김태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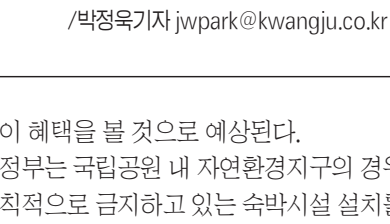
김태욱씨



김광만씨



김문일씨



김기룡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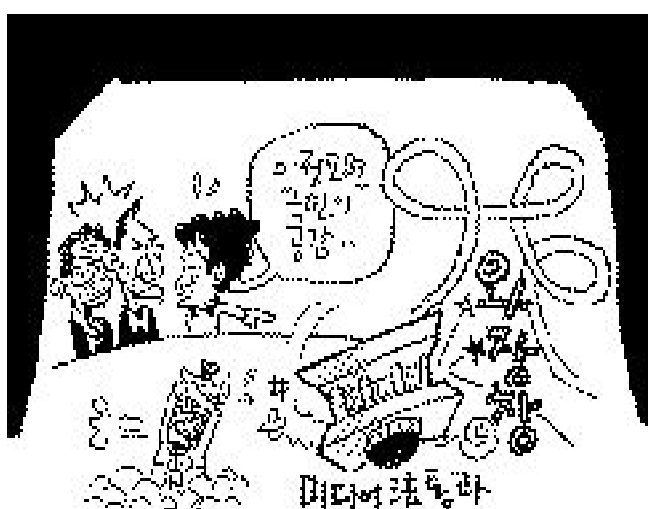
후보는 광주 서중·일고, 전남대를 나왔으며 광주케이비TV 사장, 호남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기호 2번 김광만 후보는 영산포상고, 호남대를 졸업했고 광남일보사 장간 실무팀장, 호남대 이사장 비서실장, 아이마트 대표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역시나 '현란한 기회주의자' 답다

## 실질 GDP 2분기 연속 상승

### 2분기 2.3% 증가 5년來 최고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크게 높아 하강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고 수출과 소비도 기복적인 증가세였다. 교역조건의 급격한 개선으로 소득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무려 2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0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3%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는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다만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5%로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작년 4

연합뉴스

분기 -3.4%와 올해 1분기 -4.2%에 비해 마이너스 폭은 축소됐다.

전기 대비 및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 모두 지난 10월 한이 발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개선된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민간 소비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수출은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7% 증가하면서 2003년 4분기의 14.9%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 수입도 7.3% 늘었다.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5.1% 늘어나 88년 1분기의 5.7%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GDP가 전기 대비 2.3%가 증가한데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 국립공원 시설규제 완화

국립공원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등이 완화돼 내산 호도를 비롯한 남해안 해상국립공

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숙박시설 설치를 원칙적 허용으로 바꾸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재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